



경찰청

보도자료



보도 일시	2022. 1. 24.(월) 조간	누리망·방송	2022. 1. 23.(일) 09:00
담당 부서	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	책임자	총경 주진우 (02-3150-2046)
		담당자	경정 심명섭 (02-3150-2146)

경찰 쏠 기능 총력대응,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

-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,
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 -

- 경찰청(청장 김창룡)에서는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오는 24(월)부터 2. 2.(일)까지 10일간 전국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「설 명절 종합치안활동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신고가 증가하고,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, 국민들께서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 쏠 기능이 총력대응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.
-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·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,
 - 적극적인 범집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.
- 먼저,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,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.
- 금융기관·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, 1인가구 밀집지역·전통시장 등 지역별

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-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,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, 경미사안이라 하더라도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·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.

□ 또한 사회적 약자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을 강화하고,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.

-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고, 긴급응급조치·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.

- 강력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팀장 중심의 엄정한 수사체계를 정립하고,

- 연휴 기간 침입 강·절도나 고질적인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.

□ 이와 함께 소통·안전 중심의 교통관리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- 대형마트·재래시장·공원묘지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,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,

-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·귀경길 소통을 확보할 방침이다.

- 특히 암행순찰차, 헬기, 드론 등을 활용하여 과속·난폭안전 등 사고 유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, 교통방송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운전자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코로나19 등 범정부적 재난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.
 - 연휴기간 대인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역학조사 지원 등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, 유흥주점·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.
 - 또한, 도로관리기관과 협업하여 결빙 등 취약장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대설·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.

-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께서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